별유천지에 살어리 살어리랏다

김유경
경남신문 기자

1. 최정화 작가를 처음 만난 건 2008년 창원에서다.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 맑고 서늘한 가을밤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마침 '서울 디자인 올림픽 2008'이 열리고 있어 그쪽으로 이야기가 흘렀다. 잠실에 가서 전시를 봤다고 하자, 그가 소감을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좀 지저분해 보였고..."

누군가가 허벅지를 꼬집는 게 느껴졌다.

"지금 얘가 뭐래..."

최정화 작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건 각자가 느끼는 거죠." (당시 그는 잠실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외벽을 페트병 176만3360개를 모빌처럼 엮어 장식했다. 3,638명이 동원돼 40일 동안 트럭 488대분에 달하는 페트병을 사용했다고 전한다)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지금도 그는 내게 했던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전시 말이에요. 해설사 마음대로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라고 하세요. 가이드라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I'll Live, I'll Live in Byeolyuchonji

Kim Yoogyeong
Journalist, The Kyungnam Shinmun

1. I first met Choi Jeonghwa in 2008 in Changwon. On a clear autumn evening, when the weather was pleasantly cool, I walked into a pub and stumbled upon him quite by accident. He was drinking with a group of people. Since it was in the midst of the 2008 Seoul Design Olympics displaying his recent project, the conversation naturally revolved around the exhibition. When I said that I'd seen the exhibit, he was curious about my impression of his work. I said,

"I was absolutely stunned by its enormous scale. But then, it looked a little messy…"

I felt someone giving me a pinch on my thigh. The person sitting next to me shot me a glare.

A voice followed, "What is this person talking…?"

Choi hurriedly waved his hands with widened eyes and said,

"It's alright. Good. Art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For that project, I heard, he had collected 1,763,360 plastic bottles and put them together like mobile ornaments to adorn the exterior of the Jamsil Sports Complex building where the exhibit was taking place. Over 40 days, as many as 3,638 people were involved in the project, and the plastic bottles were transported by 488 trucks.)

12 years later, he still stands by these words.

"Please leave the interpretation of this exhibition (*Sarori Saroriratta*) to the docents and let them explain it in their own ways. There are no guidelines. Who can define what art is? Does art belong to anyone specific? Art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무엇이 예술인지 누가 정해주나요? 예술이 누구의 것인가요? 여기 사람들 각자가 보고 느끼는 거죠."

2. 건물 외벽을 화려하게 장식하려는 최정화 작가의 시도는 앞서 창원에서도 있었다. 그가 창원시로부터 시민축제를 위한 작품의뢰를 받아 '축하합니다'라는 작품을 만든 건 2007년의 일이다.
높이 20m, 길이 159m의 4층짜리 창원시청 청사 전면에 알록달록한 오방색 나일론 천을 서로 엇갈리게 위아래로 늘어뜨린 설치작품이었는데, '무당집 같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창원시는 이틀 만에 이 작품을 철거했다. (이 사건은 지자체나 정부가 발주한 미술품이 '공공'이라는 개념을 내포했다는 이유로 공산품처럼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논란에 불을 지핀 일화로 지금까지도 미술계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당시 언론에 실렸던 그의 인터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무당집이나 성황당 같다고 지적하는데, 설사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토속적인 것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문제 아니겠느냐."
최정화 작가는 이 일을 일종의 해프닝처럼 웃으면서 말해 주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정말 무당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창원시민들이 과히 틀린 말을 하지는 않은 셈이다)
그가 무당이라는 말은, 미술이라는 판 안에서 그가 떠맡고자 하는 역할에 대한 은유다. 그는 연결시키는 자이며, 느끼게 하는 자이고, 함께 느끼는 자이고, 경계에서 노는 자이며, 예술계와 인간계 중간에서 '접신'을 자처한, 기꺼이 '최정화'라는 도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지금은 2021년, 경남도립미술관 외벽에는 오방색 천들이 팽팽하게 몸을 늘어뜨리고 있다. 그는 14년 만에 이 고장에 자신의 무당집을 재건한 것이다!

2. There was a similar project led by Choi in Changwon, before the one in 2008. In 2007, Changwon City commissioned him to produce a public art installation for the exhibition *City Change* scheduled on occasion of the Changwon World Parade Free Festival. For this project, Choi brought together strips of fabric dyed in traditional colours symbolizing 5 directions and hung the strips like loose latticework along the façade of Changwon Cityhall, a 20-metre-high and 150-metre-wide four-story building. But the work, *Congratulations!*, was pulled down in two days after the City received several complaints from local citizens—they complained that the garish strips of fabric made the building look like a shamanic temple. (This incident triggered a series of arguments over whether a public artwork commissioned by either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can be produced like an industrial object and still be considered an acceptable public art form just because it engages the public. The controversy still pops up in public art discourse from time to time.)
In an interview with a local newspaper, he said:
"They complained that it looked like a shamanic temple or a shrine to a village deity, but even if so, I don't get why that matters. People believe that shaman culture is indecent. Isn't that cultural bias the actual problem?"
When I asked him about that incident, he laughed and recalled it like a sort of happening in its own right. But then again, he was a real shaman! So, their complaints were not entirely wrong. What I mean by this is that the role he has undertaken in the art world is that of a shaman. He is the instrument, called 'Choi Jeonghwa', of some omnipresent existence; a mediator; a man who makes things felt and also feels them with us; a person playing on the boundary; a marginal being who falls into a creative trance at the borders between art and the secular.
Time passed, and now it is 2021. Coloured strips of fabric are hanging tightly along the exterior of the Gyeongnamn Art Museum. In 14 years, Choi has brought the shamanic temple back to Changwon.

3. In late fall of 2019, while working as a cultural correspondent for Kyungnam News, I heard from the Gyeongnam

3. 2019년 늦가을, 문화부 미술 담당이었던 나는 경남도립미술관으로부터 재미있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최정화 작가가 온다나.

그렇게 우연한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 나는 지난여름 한 철 동안 최정화 작가와 함께 경남 곳곳을 답사했다. 경남도립미술관과 최정화 작가가 계획한 10여 차례의 답사 중 나는 6번의 짧은 여행에 동행했다.

아침 일찍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짐짝처럼 차에 실려 가기도 했고, 기차 시간을 놓친 최정화 작가와 하릴없이 창원 북면 신촌 국숫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고, 진해나 거제 등지의 부둣가 근처만 가면 '기가 막힌 쓰레기'가 있나 없나 살피는 것이 어느덧 자연스러워지는 경험도 했다.

그는 이곳의 색깔과 냄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야사(野史)와 풍문들, 자본에 스러져가는 풍광들, 첨단에 으스러져가는 사물들, 이를 토대로 지역민 사이에 공유되고 추억되는 다소 궁상맞고 촌스러운 것들을 체감하고 싶어 했다. (밥을 먹으러 가도 지역 토속음식이 아니면 입에 대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마산 구산면을 시작으로 김해 수로왕릉, 동상시장, 대성동 고분군, 창녕 부곡하와이, 마산 추산동, 창원 대원동, 진주 진양호, 거제 장승포, 부산 가덕도, 양산 오봉산과 대구시립미술관 등지를 함께 다녔다. 유휴공간도 있었고 유적지도 있었고 시장도 있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어김없이 감탄했다. 옛 김해사람들이 허 황후가 아유타국에서 가져온 파사석탑 모서리를 갈아 그 가루를 약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에 감복했고, 대성동 고분군에서 막 출토된 가야인의 수정 목걸이가 지닌 영롱함에 놀랐다. 색 바랜 무지갯빛 차양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풍미한 유원지 부곡하와이의 영락을 안타까워했고, 진양호 동물원을 거닐던 라마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고산지대를 그리워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러니 고백하건대, 이 글은 내게 있어 지난여름

Art Museum that they were preparing an interesting exhibition with Choi Jeonghwa. And so another encounter came about. Last summer, I went on several field trips, led by Choi Jeonghwa, to a variety of places in Gyeongnam (Southern Gyeongsang Province). To be exact, I participated in six field trips of the ten organized by Gyeongnam Art Museum and Choi Jeonghwa. Sometimes, I took an early bus without having time to get washed up. Once, I had *maguli* (Korean rice wine) with Choi at a noodle place near the Bukmyeon train station, just killing time, since we were both unable to make the train to our destination—the trains arrived at long intervals. In Geoje and Jinhae, on every quayside, I cast my eyes about some of Choi's 'fantastic garbage'.

Choi wanted to absorb every smell and colour, the orally-transmitted local histories and rumours, the landscapes ruined by capitalist-driven developments, old things gone out of use due to new technologies, and somehow shabby and rustic things remembered among the local populations. (He didn't even touch food at restaurants unless it was local cuisine.)

Beginning in Gusanmyeon in Masan, we traveled in many places: the mausoleum of King Suro in Gimhae, Dongsang marketplace, the site of ancient tombs in Daesungdong, Bugok Hot Spring (aka Bugok Hawaii) in Chang-nyeong, Chusandong in Masan, Daewondong in Changwon, Jinyang Lake in Jinju, Jangseungpo in Geoje, Gadeokdo in Busan, Obong Mountain in Yangsan, and Daegu Museum of Art.

Wherever we arrived, we found stories ready to be told and not a single story failed to fascinate us. We were moved by the story of Pasa stone pagoda, which Queen Heo of Gaya (43-532) had brought from her hometown Ayudhya, and intrigued by the fact that the old residents of Gimhae ground the surface of the tower to use its powder like medicine, and we were surprised at the perfect quality of crystal necklaces from Gaya, which had just been unearthed from Daesungdong's historical tomb site. Watching the paled rainbow-colours of the facilities in Bugok Hawaii, which had once been one of the most famous theme parks in Korea, I felt the end of my childhood and adolescence. While looking into the pure eyes of llamas at the Jinyang Lake Zoo, I felt homesick for the alpine region where they were from, where I'd never been.

답사(踏査)를 통해 느낀 부끄러움에 대한 답사(答辭)다.
나는 분명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 지난여름의 기행을 관통하는 모든 것은 새로울 것 하나 없이 이미 보고 들었던 사실들인데, 다시금 새롭게 바라본 이 지역은 너무나 낯설고, 아름답고, 신비로웠기 때문이었다.

4. 여행지 곳곳에서 그를 사로잡는 사물들이 나타났다. 어떤 것은 수줍은 듯 얼굴을 감추고 달아나고 있었고, 어떤 것은 길바닥에 나앉아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으며 어떤 것은 뽀얀 속살을 드러내고 나 잡아봐라, 추파를 던지고 있었다.
나는 최정화 작가와 사물이 접속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 그는 저녁을 먹었던 어느 두루치기 집에서 오래된 (거의 구멍이 나기 일보 직전의) 양푼을 두고 주인과 흥정을 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 처리장에 찾아가서는 반파된 고깃배를 발견해 작업실로 옮겨달라고 했다. 어느 폐가에서는 그악스러운 모기들에 민머리를 뜯겨가며 낡은 질그릇을 털어 가지고 왔다. 어느 잡화점에서는 색색의 플라스틱 소쿠리를 바닥에 늘어놓고 크기와 짝을 맞추는 일을 반복했다. 유심히 그 모양을 관찰했으나, 애석하게도 나는 그가 물건을 택하는 건지 물건이 그를 택하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다. 다만 두 개체 사이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고안된 정교한 프로토콜 같은 것이 숨어있지 않을까 짐작할 따름이다. (그러니 그 과정은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체계적일 것이다. 때문에 나는 그가 작품을 마치 '일'처럼 한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5. 거듭되는 여행과 더불어 경남도민들이 기증한 그릇과 냄비들도 경남도립미술관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모아모아프로젝트〉였다. 나는 주방을 뒤져 돌아가신 나의 조부모님이 쓰시던 낡은 냄비 두어 점을(마침 그것이 거기 있었다) 가져다주었다.
'인류세'가 미술관 마당에 우뚝 서던 날, 나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한 기원(起源)이 하늘에 가 닿았다고 느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는 높고 드넓고 아름답죠? 거기에선 내가 웃고 울고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서는 게 다 보이죠?

June, July and August passed that way as if in an instant, and I suddenly felt a bit ashamed. So, I confess, this writing is my answer to the feeling that I felt for the summer field trips. As a person who was born and has grown up in this region, those stories were not entirely new to me, but as I heard them retold, I've come to see my hometown completely differently. It looked so beautiful and marvellous.

4. In almost every place we visited, objects appeared that fascinated Choi. Some were hiding themselves as if shy, some wept over their fates, some revealed themselves almost flirtatiously.
I observed the creation of these ties between Choi Jeonghwa and objects several times. At a spicy tofu house, he haggled with the owner of the restaurant over the price of an old nickel silver bowl, so old it would soon have holes. Discovering a shipwreck in a disposal facility of discarded fishery polystyrenes, he asked people there to deliver the wreck to his studio. He brought a number of pieces of old earthenware from an abandoned house—he came back with mosquito bites all over his bald head in addition to these pieces. In a mom-and-pop shop, he laid out a number of colourful plastic baskets on the floor and paired them according to their size in this way or that—again and again. Despite my careful observation, I was never sure whether he chose the objects, or the objects chose him. I could only vaguely presume that there was some kind of intuitive but also systematic criteria, some exquisite protocol at work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objects.

5. In the course of these continuing field trips and with donations of Gyeongnam citizens, Choi gathered a large number of tableware pieces and other objects. This was the project, *Gather, Together.* I rummaged through our kitchen for something old and unused, and I found two saucepans that my late grandparents had used. I brought them to the museum.
The day the installation, *Anthropocene,* was erected in the museum square, it felt like the very origin of my being reaching up to the sky. Grandma, grandpa, does it look as vast and beautiful up there as it does from down here?

나의 조부모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고 또 여기에 묻혔다. 이 고장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한 방식으로 면면이 이어져 왔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부시게 하찮은 것들'을 모으고 모아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처럼 경남의 창공에 올려다 놓았다. 최정화 작가가 자신의 '쌓는 행위'를 두고 시장 상인들에게 배운 탁월한 공간경영이자 동서고금을 막론해 잘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원이 담긴 배열이라 설파하듯, 나에게는 '인류세'를 두고 탑돌이를 하고 절을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6. '인류세'로 재탄생하기 전, 냄비와 그릇이 수북이 쌓인 미술관 로비를 서성인 날이 있었다.
'걷지 못하던 아기 때부터 밥 먹을 때 같이 했던 그릇이에요.'
'입덧이 너무 심해 가자미 밖에는 구워 먹을 수 없어 늘 함께했던 프라이팬이에요.'
기증자들이 그릇에 남기고 간 메시지를 읽다 왈칵 눈물이 났다.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어 나를 치고 가는 매운 감정인가. 가장 개인적이지만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들. 특정 지역 방언처럼 극도로 내밀하지만 알고 보면 전 인류가 함께 써왔을 극도로 추상화된 하나의 언어.
나는 낡고 부서진 그릇더미 앞에서 최정화 작가가 답사 내내 내게 해온 말들, 알쏭달쏭 알듯 말 듯 했던 그 말들을 단박에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만든 건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기억이고 미래의 기억이다"
"물질이 정신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
"당신이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작품이다"
"생각을 보고,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예술이다"
"나는 공동작업만 해왔다. 개인 작업을 한 적이 없다"

Are you there watching me when I laugh, cry, collapse and rise again?
My grandparents were born, lived, and were buried in this region. Probably, most of the people from here lived and died the same way. We gathered their and our 'precious little objects' here to build them up to the sky in Gyeongnam like 'the spine of our bones, the flesh of our flesh'. Just as Choi Jeonghwa preached to us that this act of accumulating was an excellent spatial operation that he learned from market merchants and the accumulation was a traditional arrangement delivering a prayer for well-being found both in Eastern and Western culture, I found a reason to perform topdori (a ritual of walking around a pagoda while praying for well-being) and bow before *Anthropocene*.

6. Before the erection of *Anthropocene*, I spent some time in the museum lobby populated with pots, bowls and saucepans.
'I have used this bowl since I was only a rugrat.'
'When I was pregnant, my morning sickness was so strong that I could only eat fried halibut. This is the frying pan I always used then.'
Reading the notes that people left on their donations, I burst into tears. Where does this tingling feeling come from that hits me so fully so suddenly? The most personal but also the most universal stories. As private as a vernacular only used by people from a specific region, but in fact as ordinary as the language in which the entirety of human life is abstracted. Before the piles of the old and dented tableware, I could finally understand the words Choi Jeonghwa had repeated during the field trips, which were so ambiguous that I'd hardly understood then.
"What I've produced are not material things but their memories and future memories."
"I want to show the process of things turning into collective minds."
"You're the owner, the protagonist, the work of art."
"Art makes you think and shows you what you think."

7. 답사에는 〈살어리 살어리랏다〉의 연계전시 〈별유천지〉를 준비하는 팀들을 최정화 작가가 하나하나 찾아가 살피고 조언하는 여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거제에서 지역 유휴공간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공유를위한창조', 발달장애인과 도시양봉을 접목시킨 양산의 '비컴프렌즈' 방문에 동행했는데, 이들의 공통된 고민은 '우리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어떻게 미술관 안에 구현하느냐?'였다.
그들은 준비과정에서 미술 전시에 부합할 만한 기획안을 구상했지만 대부분이 퇴짜를 맞았다. (경남도립미술관과 최정화 작가가 그들에게 원한 건 미술 전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정화 작가를 붙잡고 '도저히 모르겠다'며 우는소리를 했는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충고했다.
"예술 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예술 하려는 순간 이 전시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현장'이라 부르는 공간을 경남도립미술관 3층에 그대로 옮겨 펼쳐두었다!)

8. 전시 개막 후, 경남도립미술관을 찾은 나는 1층 로비에서부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상남동 고인돌〉이라는 작품 앞이었다.
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상남지석묘'에 대해 열정적으로 떠든 적이 있다. 창원에는 한강이남 최대 유흥가라 불리는 '상남동'이라는 곳이 있다. 사방에 술집과 노래방과 모텔이 즐비한 곳인데, 그 한가운데 고인돌이 있다. 청동기 남방식 고인돌이라지만 우리에겐 일상에 스며든 이정표에 가깝다. 창원사람들 말한다, 7시에 상남동 고인돌 앞에서 봐.
그는 그날 저녁 서울로 떠나는 기차에 오르기 전 상남지석묘를 찾았고(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폐스티로폼으로 그것을 미술관 안에 재현해놓았던 것이다!
〈성게〉 앞에서는 거대한 테트라포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파도에 밀려온 부표들을 끌어모았던 기억을 떠올렸고, 〈폐선〉

"I've always collaborated with people to create works. Never created works on my own."

7. The field trips included visits to the project teams participating in the exhibition *Byeolyuchonji*: In each visit, Choi watched how they prepared their exhibits, talked with them, and sometimes offered advice. I joined, along with a few others, the visits to Create to Share in Geoje Island and BeeComFriends in Yangsan. They were there creating strong communities by transforming unused facilities into communal spaces (Create to Share) or by conducting bee-keeping projects with developmentally disabled young friends. (Beecomfriends). The same question was troubling both team members: "How to present what we're doing in our neighbourhoods in a museum space?"
Their early proposals, which they made as suitable as to an art exhibit, were mostly rejected. (The Gyeongnam Art Museum and Choi Jeonghwa didn't want an art exhibition from them.) They gathered around Choi, explaining that they had no idea of what to do with their exhibit. Whenever they grew worried or frustrated, Choi repeated his words: "Don't try making it like an art exhibit. Your way of leading your life here is itself art. The moment you intend to make it look like art this exhibition will be off track." (And so, they transferred the spaces they call 'sites' in a gallery on the third floor of the museum as they were!)

8. After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I visited the museum and the statue in the lobby on the first floor caused me to burst into laughter. The work was *Sangnamdong Dolmen*.
One day, in the middle of the summer field trips, I raved about Sangnam Stone Tomb. "There is a town called Sangnamdong in Changwon, a town we Changwon citizens call, and believe to be, the best nightlife zone you could ever find in areas south of Han River. Wherever you stand, there will be pubs, karaoke places and motels beckoning to you. In the middle of the town, a large dolmen is seated. It is said to be a southern-type dolmen made in the Bronze Age, but whatever it is, for people in Changwon, it is more like a part of their daily routines, an easy landmark. You'll often pick up that people say, 'see you at 7 there in front of the dolmen!'."

앞에서는 코를 싸쥐었다. 에폭시 처리를 한 폐선은 옆구리를 다친 채 방금 뭍에 닿은, 소용을 다 해 슬픈 어선처럼 보였다. 마산 옥계바다에서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가 떠올랐다. 어디선가 짭조름하고 콤콤한 갯내가 나는 듯했다.

마산수협공판장 생선 상자를 쌓아 만든 〈탑〉, 마산청과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바구니로 만든 〈꽃상자〉, 쌀쌀한 새벽 경매를 마친 도매상인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몸을 녹이던 카트를 옮겨놓은 〈따뜻한 방〉 앞에서 나는 '알케미(Alchemy)'에 대해 생각했다.

구리나 납, 주석을 금이나 은으로 재탄생 시키려 했던 무모하고도 용감한 그 마음, 하찮은 것을 고귀한 것으로 빚어내고자 하는 그 순정한 마음에 대해. 명품관 진열장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페트병이고 슬리퍼고 소쿠리고, 다 떨어진 몽당 빗자루가 정좌를 하고 앉은 알케미에 대해. 민구(民具)에서 토사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우레탄폼, 알록달록한 수예품 위에서 관능적으로 몸을 뒤채는 네온의 알케미에 대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지역의 역사를 수집하고 기록한 이들(이번 전시에 목(木)오리 수백 점을 제공한 김경수 월당고미술관 대표나 근대 창원지역을 기록한 사진 수십 점을 제공한 양해광 창원향토자료전시관장 같은 분들)과 이들이 제공한 추억을 정성들여 들여다보는 관람객이 이루는 알케미에 대해. 그리하여 작품을 만든 이와 작품을 바라보는 이가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아, 너에게는 내가 나에게는 네가 있어야만 마침내 발산하는 피보나치수열 식 알케미에 대해.

최정화 작가는 경남 곳곳에서 그러모은 온갖 잡동사니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경남도민들 앞에서 연금술을 부린다. 그의 연금술은 (잡동사니 자체로썬 일찍이 가져보지 못했던) 압도적 웅장함과 기묘한 숭고함을 불러일으키고, 그 미감들은 기존 예술이 쓰고 있던 앎디앎은 가면,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예술은 이렇게 고매한 거란다' 라는 거짓 프로파간다를 한껏 꼬집고, 비틀고, 전복시키고, 붕 떠서 헛발질해대던 두 발이 단단한 지면을 딛고 서게 만들고, 우리는 그 앞에서 통쾌하게 웃어 재낀다.

Unbeknownst to me, before getting on the train to Seoul that evening, Choi had gone out and found the dolmen, and now I saw it represented in the museum lobby using discarded Styrofoam!

Standing before Sea Urchin, I recalled going through arrays of large tetrapods and collecting floats washed up on the shore by the sea waves; before Shipwreck, I found myself holding my nose. The pressure-treated epoxy shipwreck looks sad, like a boat just arriving at the shore with a wound at its side, never to be used again. The moment we saw it first at the sea in Ogkye, Masan, was brought back to mind. I could almost sense a salty fishery smell coming from somewhere.

Tower, made with a collection of fish boxes from the Masan Joint Fishery Market; *Flower Bask*, with one of the baskets used for decades by Masan fruit market vendors; and *A Warm Room*, with portable carts that wholesale dealers sat on after the chilly wee hour auction—looking at those works, I could think only of alchemy, the bold attempt to create gold or silver out of copper, lead, and tin, the pure desire to create something noble out of commonplace substances. I thought, too, of Choi's alchemy, the transformation of plastic bottles or slippers into objects in luxury showcases, of worn-out sweeping brooms into beautiful flowers in an enormous vase. I thought of the alchemy of neon tossing and turning over the handcrafted objects. And of the alchemy achieved by people who have continued to collect and record the stories of this region (such as Kim Gyeongsoo, director of Woldang Antiquity Museum, who offered hundreds of wooden duck statues for this exhibition, and Yang Haegwang, director of Changwon Local Culture Archive, who provided dozens of photographs of Changwon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people who are appreciating those memories. I thought about the Fibonacci-sequence-type alchemy that takes place only when I and you, you and I are put together, and about how the creator of a work and the spectator of a work are not different but are equally necessary for art to happen.

Choi Jeonghwa brought together these odds and ends from all quarters of Gyeongnam and performed an alchemist magic. The magic created an overwhelming sense of grandeur and the sublime in these commonplace objects, an energy these objects had never had before, and the beauty created in the accumulation of objects twisted and

아, 속 시원해. 누군가는 말했지. 이런 것이야말로 '각종 선언이 배제된' 진짜 민중미술이라고.

9. 〈살어리 살어리랏다〉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속에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발을 묶은 것도, 발이 묶인 이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것도 이 엄혹한 상황이 불러온 '또 다른 가능성'이 아니었을까.
지난여름 대구시립미술관에서 최정화 작가는 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을 줄기차게 다녔지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해외 프로젝트가 전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그게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건 뭐였을까? 그를 줄기차게 바깥으로 향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회의하게 만든 그것. 다른 말로 하면 줄기차게 바깥을 향해 있던, 더 우월해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는 것, 화려한 중앙무대만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과 귀와 혼을 우리가 매일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으로 되돌려놓을 나침반일지 모를 그것.
〈별유천지〉에 참여한 비컴프렌즈 김지영 대표는 대충 방향을 잡은 듯 보였다. 〈살어리 살어리랏다〉와 〈별유천지〉 전시 개막 후에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 미술관 측에서 '별유천지(別有天地)'라는 전시 제목을 제시했을 때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별유천지라는 건 이상세계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발달장애아를 돌보는 삶은 정말 만만찮은 하루하루거든요. 그걸 두고 별유천지라뇨. 그런데… 전시를 준비하면서 사유하게 되더라고요. 별유천지라는 곳이 어딘가 저 멀리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별유천지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가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10. 그러므로 여기가 별유천지다. 그러니 여기에 살어리 살어리랏다.

subverted that fake notion that 'art is too noble to be understood', and made us break into laughter.
Good riddance to all that, I thought.
Someone I know said, "This is what true Minjung art looks like, getting away from all kinds of manifesto and -isms."

9. *Sarori Saroriratta* came to take place in the unprecedented world of COVID-19. But ironically, this crisis was exactly what kept us from looking for other places and led us to re-explore this region. Isn't it only another possibility that this novel virus has brought us?
Last summer at the Daegu Museum of Art, Choi Jeonghwa said,
"Until last year, I constantly went abroad. But as the COVID-19 situation got heavy, every overseas project schedule was either cancelled or postponed. In hindsight, I've come to think, 'what was all that?'"
Right, what was all that? The thing that made him constantly look out has now been brought into question. The thing that made us constantly pursue something more superior, more sophisticated, and more glamorous has now turned our eyes, ears and hearts back toward here, the ground we stand on.
Kim Jiyoung, director of Beecomfriends, seemed to get the idea of their exhibit. After the opening of *Sarori Saroriratta* and *Byeolyuchonji* (*Elsewhere, Here*), she told me,
"When the museum told me the exhibition title would be *byeolyuchonji*, it didn't really make sense to me, to be honest. Because it means a utopia. Taking care of kid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veryday is tough, it's a never easy life. You would never call it *byeolyuchonji*. But, well… as we prepared our exhibit, I found myself thinking that *byeolyuchonji* might not necessarily be somewhere far away, even if it exists, and that if it exists, it may be inside me, inside us, and in the world we're making in our community."

10. And so byeolyuchonji is *here*, where we live. So that's where I'll stay. Right here.